

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: 감바루(頑張る)

‘감바루’란 ‘참고 계속 노력하다’라는 의미로 나와 내가 속한 집단과의 관계설정에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단어로 인식되며, 집단의식을 서로 의식하고 강화하려는 의지가 담긴 말로 해석 됨

□ 2002년 한일월드컵과 ‘감바레 닛폰(頑張れ日本)’

- ‘감바레 닛폰(頑張れ日本)’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일본 팀을 응원하는 관중석에 항상 걸려 있었던 플랜카드 문구였음
- 일본팀 응원단의 함성소리는 대부분 ‘감바레 닛폰’이었으며 우리가 대~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했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음
- *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듣더라도, 힘내라 내지는 파이팅 정도의 의미로 생각 해 볼 수 있으나 일본사람들에게 ‘감바레’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

□ 감바레의 원형은 감바루(頑張る)

- 감바루(頑張る)는 일본 사회에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
- 감바루는 원래 ‘가오하루(我を張る, 고집을 부리다)’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, 집단의 결정 혹은 규범에 반대한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음

- 그러나 1930년 대 경부터 감바루는 긍정적인 단어로 바뀌면서 주로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음가짐 내지는 노력을 설명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
- * 사전적 의미도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 (1) 강경히 버티다, 우기다 (2) 참고 계속 노력하다로 되어 있으나, 보통 (2)의 의미로 쓰임
-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격려하며 집단의식을 강화하려는 일본인의 의지
- 가령 농촌 청년이 도심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위해 고향을 떠날 때 친구나 친지 혹은 은사에게 감바리마스(頑張ります)라고 약속함
- * 이 말에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으며 나와 내가 속한 집단과의 관계설정에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단어로 인식됨
- *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‘감바레 닛폰’은 우리나라 응원단이 외치는 대~한민국에 버금갈 정도로 선수들에게는 격려와 힘이 되고 선수들 역시 서로를 격려하는 말로 ‘감바레’를 연발함
-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해있는 중국어에도 집단의식을 서로 의식하고 강화하려는 의지가 담긴 일본의 ‘감바레’와 상응하는 말로 지ាយ오우(加油)가 있음
- 일상생활은 물론 특히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를 할 때 중국 응원단이 주로 선수를 격려하고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로 쓰임
- *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더 부어 불기를 더 거세게 한다는 의미에서 온 것임
- * 일본어의 감바루 역시 타오르는 불기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심리적 작용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음

□ 일본 기업들의 ‘감바루 정신’

- 참고 계속 노력하는 것은 운동 경기만이 아니라 일본이 만들어 내는 제품에도 그대로 반영됨
 - 끝마무리가 잘 되어있고 세련된 이미지로 품질이 좋은 상품의 대명사가 바로 ‘일제’ 였고 ‘일제’ 라고만 하면 소비자들에게 통하던 시절이 있었음
 - * 이러한 일제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 근로자의 장인정신을 꼽을 수 있겠지만 참고 견디며 한계에 도전하는 근로자의 ‘감바루 정신’ 역시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음
- 일본의 제조업 현장에서 ‘모우스코시 감밋데 미마스(もう少し頑張ってみます,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)’ 라는 상시적으로 쓰는 말이 있음
 - 마무리되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노력해 한계를 극복하는 것,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는 ‘감바루 정신’ 이 제조업 강국 일본을 만들어 내는데 주요 했다고 볼 수 있음
-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‘일제(日製)’ 는 그 명성이 예전보다 못한 게 사실임
 - 그래서인지 일본 정부와 재계가 힘을 합쳐 그간 국가 브랜드로 통용돼 온 ‘Made in Japan’ 을 ‘네오재패네스크(Neo Japanesque, 신(新) 일본양식)’ 로 바꾸겠다고 나섰다
 - * 기술력에서 외국산을 압도했던 ‘메이드 인 재팬’ 제품 이미지가 한국 중국 등의 추격으로 빛이 바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

- 새로운 일본의 국가브랜드로 과거 ‘일제’의 명성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음
- 일본의 새로운 브랜드는 메이드 인 재팬이 갖는 우수한 품질에 전통공예를 비롯하여 치밀하고 종교한 일본의 전통문화를 접목해서 탄생시킬 계획이라고 함
- 과거 ‘일제’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일본 곳곳의 제조업 현장에 서 다시 한 번 ‘감바레 닛폰’이 크게 울려 퍼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